



방미 경제사절단은 미국 시장 선점 등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됨

〈보도 주요내용〉

5.8.(월) 한겨레 「대미 경제사절단이 ‘조공’이 안되려면」에서는 경제사절단이 ‘조공품’이 되지 않도록 경제사절단의 특실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의 경우 미국과의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미국시장 선점 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이번 방미를 통해 50개 MOU 체결 및 59억불 투자유치 등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부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3-5651)